

# 화순군, 전남 첫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 구충곤 군수 “세대연대 통해 따뜻한 복지공동체 만들어가는 출발”

화순군은 15일 민선 7기 역점 과제인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친화도시 인증은 전국 지자체 중 8번째, 전남에서는 처음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으로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했다.

화순군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정)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 영역 37개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친화도 분야에서는 5개년 실행계획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T/F 구성과 여성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친화도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기반, 서비스 등을 갖춘 도시로, 나이가 상관없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화순군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으로 전 세계 회원 도시와 고령친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경험 등을 공유하고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3대 친화도시 인증은 목표가 아니라 세대연대를 통해 따뜻한 다양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출발이다”며 “이를 계기로 사



회·경제·문화적 제도와 기반을 더욱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담양군, 코로나19 확산 우려 ‘대나무축제’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5월 대표 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다.

담양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이던 ‘제22회 담양대나무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담양대나무축제는 대나무를 소재로 개최되는 친환경 축제로 대나무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이며 해마다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2022년까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살피며 대나무축제를 예전보다 축소된 분산형 현장축제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제3차 대유행 이후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은 조용한 전과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제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5월은 축제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많은 나들이객이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관광객 분산을 위한 방안 강구와 함께 주요 관광지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2년 연속 축제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축제의 특성 상 대인간 접촉이 불가피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취소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이 돌아와 대나무축제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나주시-나주교육지원청 미래 인재육성 ‘의기투합’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시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의기투합한다.

나주시는 15일 시청 이화실에서 강인규 시장과 김영길 교육장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비전’을 공동 발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탄탄한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지원에 따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성공적인 교육 정책 추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비전 발표문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미래인재 집중 육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 ‘진로체험 활성화’ 등 4대 분야 299억원 규모 64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1년 교육지원계획에 대해 밝혔다.

나주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Non-GMO’(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식재료와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무상급식 제공에 총 76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저소득 가정 ‘우유급식’ 지원,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과일간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꾀한다.

또 영어·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국악 예술강사 지원에 6억원을, 초·중·고 각급 학교의 방과 후 학습에 24억원을 지원해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 시행 5년차를 맞은 대중교통 취약지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등 41개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 구례군, 농공단지 무료 통근버스 3년 연속 공모 사업 선정

###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을 위해 1일 4회 통근 버스 운행 대중교통 취약지역 기업부담 완화 및 구직난 해소에 큰 도움

구례군은 3월 15일부터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을 위한 “농공단지 무료 통근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고용노동부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40인승 버스 1대와 22인승 버스 1대를 임차하여 1일 총 4회를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3월 15일 버스 운영을 시작해

서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57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군내버스 경우 노선이 적고 배차 간격이 길어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으나, 미운행 지역이 많아 근로자들의 불편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 협의회 대표는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못

구례=박진호기자

## 곡성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친환경 벼 교육 ‘성료’



곡성군이 3월 3일부터 12일까지 2021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친환경 벼 과정을 인기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351명이 참여해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받았다. 공공비축미곡 수매 품종의 주요 특성과 재배상 유의점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알차게 채웠다.

이런 교육은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까닭에 대면방식으로 진행됐다. 따

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소규모 순회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각 읍면 사무소 회의실 등 11개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했고, 사전 소득 등 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친환경 벼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고령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교육을 진행 덕에 안전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교육을 더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